

하천변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고찰 - 4개 시군(남원, 산청, 하동, 함양)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the Waterside Village Groves

권덕규*,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요약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마을단위의 주거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마을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마을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보존해 온 공유산림이 있었다. 이러한 숲을 마을숲이라 하는데, 마을숲은 토착신앙, 풍수지리, 경관유지, 편익제공, 환경조절, 경계설정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온 문화 통합적 시설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유지되어 왔다(김학범, 장동수 1994). 하지만 이러한 마을숲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수가 소실되었고, 그 이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토지전용, 마을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 자연재해 등으로 이미 소실되었거나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자연자원의 황폐화와 소실, 그리고 수백 년간 우리 조상들이 가꾸고 지켜 온 문화유산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에 자연자원으로서 마을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진 공동의 숲이자, 우리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인 마을숲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마을숲의 관리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 방향(김학범 외 2003, 2008, 박재철 외 2004, 2010, 이경락 외 2006), 마을숲의 생육환경과 경관분석을 통한 향후 복원방향제시(최재웅 외 2003, 2009, 강현경 2004, 유종덕 외 2009), 마을숲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제고에 대한 연구(최재웅 2000, 박봉우 2006, 정명철 2010)가 있었고, 그 외에 생태관광이나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김희경 외 2006, 구태익 2009)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마을숲의 지속가능성 연구의 일환으로 마을숲을 생태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각 그룹에 속한 마을숲의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리산 권역에 있는 남원 2개소(삼산숲, 행정리숲), 산청 2개소(장재숲, 송정숲), 하동 3개소(만수당, 취간림, 하동송림), 함양 3개소(도천리송림, 울림, 함양상림)로 총 10개의 하천변 마을숲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숲의 생태적 건전성에 대한 평가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한 평가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생태적 건전성은 『한국의 전통하천 숲(조현제 외 2011)』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건강상태와 생육환경의 상·중·하 평가를 3점·2점·1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 후 평가하였고,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는 마을숲의 기능을 점수화하여 현재 남아있는 마을숲의 기능수(B)에서 과거에 있던 마을숲의 기능수(A)의 차에 대한 변화율((B-A)/A)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마을숲의 기능은 크게 물리적 기능(방풍·하천제방·떨감 및 임산물 채취), 정신·문화적 기능(당산제, 마을잔치 및 전통놀이), 휴양 및 관광 기능(휴식 및 운동, 외부 휴양객의 방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생태적 건전성과 사회적 건전성이 모두 평균이상인 것, 둘 중 하나라도 평균이상인 것, 모두 평균이하인 것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로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된 요인을 질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평가 결과는 생태적 건전성과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가 모두 평균 이상인 곳이 2개소(취간림, 함양상림), 생태적 건전성만 평균이상인 곳이 5개소(삼산숲, 행정숲, 하동송림, 도천리송림, 울림),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만 평균이상인 곳이 1개소(만수당), 생태적 건전성과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 모두 평균 이하인 곳이 2개소(송정숲, 장재숲)였다.

취간림과 함양상림의 경우는 생태 건전성과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취간림

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여 왔으나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되어 오다가 마을숲의 관광지화를 위한 면사무소의 적극적인 관리와 인근 마을주민들의 협조로 다시 관리되고 있다. 더불어 하천제방의 구실과 외부 휴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그 보존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함양상림의 경우도 뚜렷한 관리주체인 함양군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인근 주민을 포함한 외부 관광객들의 휴식처로서 그 이용가치가 높다.

삼산숲, 행정숲, 하동송림, 도천리송림, 울림의 경우는 생태적 건전성은 높고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 삼산숲과 행정숲은 모두 시의 협조를 얻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숲을 관리하고 있고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외부휴양객들의 잦은 이용으로 그 가치는 높아졌으나 마을인구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이용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동송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군청의 지속적 관리를 받아 생태적 건전성은 높으나 마을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아 인근 마을주민들의 이용도는 감소하고 주로 외부 휴양객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도천리송림은 문중의 소유이나 숲에 대한 문중의 가치 인식이 높고, 마을주민들과 외부 휴양객들의 이용이 높아 숲의 보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마을주민들이 기존에 숲에서 연료를 채취하거나 마을 공동행사를 추진하였던 공유림으로서의 가치는 약화되고 있다. 울림은 군청 소유로 마을이장과 군·면의 협조로 관리되고 있으나 주로 외부 휴양객이 이용하고 마을주민들의 이용은 감소되고 있어 마을의 전체적 관심은 약화되고 있다.

만수당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는 높은 반면 생태적 건전성이 낮게 나타났다. 만수당은 약양면 노인회가 소유하고 있고 숲 밑에 경로당이 설립된 이후로 노인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반면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노인들이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재숲과 송정숲의 경우는 생태적 건전성과 사회·경제적 기능 평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장재숲은 마을의 소유는 아니지만 예로부터 마을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휴식공간이었고 방풍과 하천제방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송정숲에 비해 비교적 생태적 건전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달리 송정숲은 마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숲이라기보다 물이 범람하여 소실된 논에 나무를 식재하여 만든 숲이다. 주로 여름철 외부휴양객을 위한 휴식처로서의 기능만을 갖고 마을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합해 보면 마을숲에 뚜렷한 관리주체가 있고 사람들의 이용이 많을수록 생태 및 사회·경제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관공서나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인근 마을주민들의 이용, 그리고 마을숲의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 인식은 마을숲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을숲의 이용이 감소하고 마을숲에 대한 가치인식이 희박해지면 마을숲의 관리가 소홀해져 마을숲이 차차 쇠퇴될 수 있음을 위의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즉, 마을숲을 관리하는 뚜렷한 관리주체와 마을숲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돕는 마을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마을숲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